

투데이 칼럼

기업 유치의 시작은 긍정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찬·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좋지 못한 기업 유치 경험에서 비롯된 부메랑이다. 과거 양적(量的)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기업들이 환경을 경시하면서 지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기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 불구하고 필자는 '기업유치의 시작은 긍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특히 농촌경제에 있어 기업이 주는 파급효과를 가깝게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기업유치가 주는 상생의 효과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을 살린다.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지만 농사보다는 회사가 다니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농사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기를 떠나라는 이야기와



전 민 중
고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별반 다르지 않다.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있다. 한마디로 찬대반상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개개인을 살리는 일이다.

둘째, 마을을 살린다. 농촌지역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작은 마을에 있어서 '지역소멸'은 남의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 둘 떠나 마을 형태가 사라지면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되어있는 기차시설'이 가까이 들어선다. 설상가상 이 시설의 악영향으로 인근 마을들도 소멸이 가속화된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여러 공간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은 마을을 살리는

것이다.

셋째, 사회도 살린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들이는 가짓수가 적어 삶의 활력이 뻥뻥 보이는 농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다. 그런데 기업 유치는 도시의 돈이 농촌으로 흘러들게 하고 여러 직종도 파생시킨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는 다음 단계로 진화해 간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또 하나의 방안이다.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 경우 속은 편할 수

있으나 인간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리 단정지어 기업을 배척하기는 쉽다. 그러나 고민할 일이 줄어드는 만큼 상기와 같은 상생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긍정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로 기업유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환경 보호 방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이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심사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지킬 방법이 없다면 투자 유치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심사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지킬 방법이 없다면 투자 유치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심사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지킬 방법이 없다면 투자 유치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오염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온 시내 하천들도 많이 깨끗해졌다. 또한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환경을 훼손하면서 지속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게 긍정에서 시작하는 기업유치 풍토를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분열이 아닌 단합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문

가을철 야외 활동도 조심! 조심!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절(天高馬肥之節)은 두 삼언의 시 중소미도(中蘇米道) 중 "가을 하늘 높고 국경의 말은 살졌으니"의 추고새마비(秋高塞馬肥)에서 유래한 말로 아주 좋은 계절, 가을을 일컫는다.

덥지도? 춥지도? 습도마저 높지 않은 날씨, 일상의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산행과 야외 활동 중에도 위험은 곳곳에 존재하며 그중 벌 쏘임과 뱀물림 사고는 자칫 생명을 잃게 하는 치명적 요인이 된다.

지난 8월 22일 충북 영동에서 버섯 채취 중 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로 사탕을 공격하는 벌은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과 땅벌, 수풀에 동자가 있는 풀말벌이며, 최근에는 왕바나나·등검은말벌 등이 도심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수말벌은 사람이 4~5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공격하는 특성

과 맹목성의 침을 여러 번 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말벌에 쏘이면 30분 이내에 기도나 장이 부으면서 급성 호흡곤란과 함께 혈압이 떨어지는 알레르기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119에 신고와 함께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야외 활동 중 말벌을 발견하면 벌을 자극하는 큰 움직임은 삼가고 자세를 낮춘 후 멀리 피해야 하며, 발견에 쏘인 후 그 자리에 머물면 여러 차례 쏘일 수 있어 최대한 멀리 달아나야 한다. 벌 쏘임 방지를 위해서는 음료수나 과일·향수 등의 유인 요인과 어두운 색상의 의상을 삼가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말벌과 달리 뱀은 위험을 느끼기 전 사람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등산로를 벗어난 산행, 버섯·약초 채취 시 뱀을 접촉해 물



오 미 석
순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뱀은 살모사 종류와 유휘목이(뱀뱀)가 있으며, 이중 유휘목이 는 독이 없는 뱀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1984년 일본에서 물려 사망한 사례가 있는 뱀뱀이다. 삼각형 모양의 머리가 특징인 뱀뱀에 물리면 혈관을 통해 독이 퍼지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하면 뇌출혈과 심장마비를 유발해 목숨을 잃게 된다. 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화나 장화 등 독이 높고 바타이 두꺼운 신발을 착용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는 지팡이 등을

이용해 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뱀물림 시 휴대폰 등으로 물린 뱀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뱀의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처의 이빨 모양이 일직선상에 일정한 크기의 자국 두 개가 나 있다면 뱀에 물린 것으로 의심하고 대처해야 한다. 응급처치는 먼저 뱀이 있는 장소를 벗어나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높인 후 물린 곳의 5~10cm 위쪽을 끈이나 손수건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되 너무 조이지 않게 묶어 피부괴상을 예방하고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 독이 퍼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때 입혈관을 통해 독이 퍼지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하면 뇌출혈과 심장마비를 유발해 목숨을 잃게 된다. 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화나 장화 등 독이 높고 바타이 두꺼운 신발을 착용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는 지팡이 등을

사설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가 복지 정책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크게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두 가지가 있다. 선별 복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겐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과 빈민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형평성이 낮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낙인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보편 복지는 최대 다수에게 제공하는 복지로서 효율성은 낮지만 형평성은 높다. 최대 다수에게 복지 재원을 배분하므로 복지의 질은 떨어지지만 낙인 효과가 적다.

1970년대 영국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폈다. 그러자 취업을 기피하고 사회 복지 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영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복지를 위한 공공 지출의 삭감과 세금 인하 정책을 단행했다. 이는 복지의 역기능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반면 사회 보장을 축소하고 빈민부양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의 노력과 시장 기능 및 국가 복지를 연계하는 복지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생산적 복지 또는 근로 복지라 한다.

한국 정부도 근로 장려 세제 등 생산적 복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복지 수혜자의 지립을 지원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생산적 복지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근로 소득을 얻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이다.

복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복지 의존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재집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종식됐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대통령궁에는 탈레반기(旗)가 게양됐고 미 대사관에선 성조기가 내려졌다.

2001년 9·11사태 한 달 뒤 미군의 탈레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끝이 났다. 아프간 친미 정권은 무능했고 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이런 정부를 지지할 리도 없었다.

결국 30만 정부군은 8만 명의 탈레반에 백기 투항했다.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 자위력을 포기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정권의 말로를 보여준 셈이다. 아프간 정부의 붕괴는 20년간 2조 달러 이상 쏟아 부은 미국의 실패이기도 하다.

미군 주둔을 연장해도 상황 변경은 어려웠다. 바이든 정부의 오판도 사태를 키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2의 베트남 사태는 없다고 정당했"을 뵈었다.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공황으로 달려가고 총격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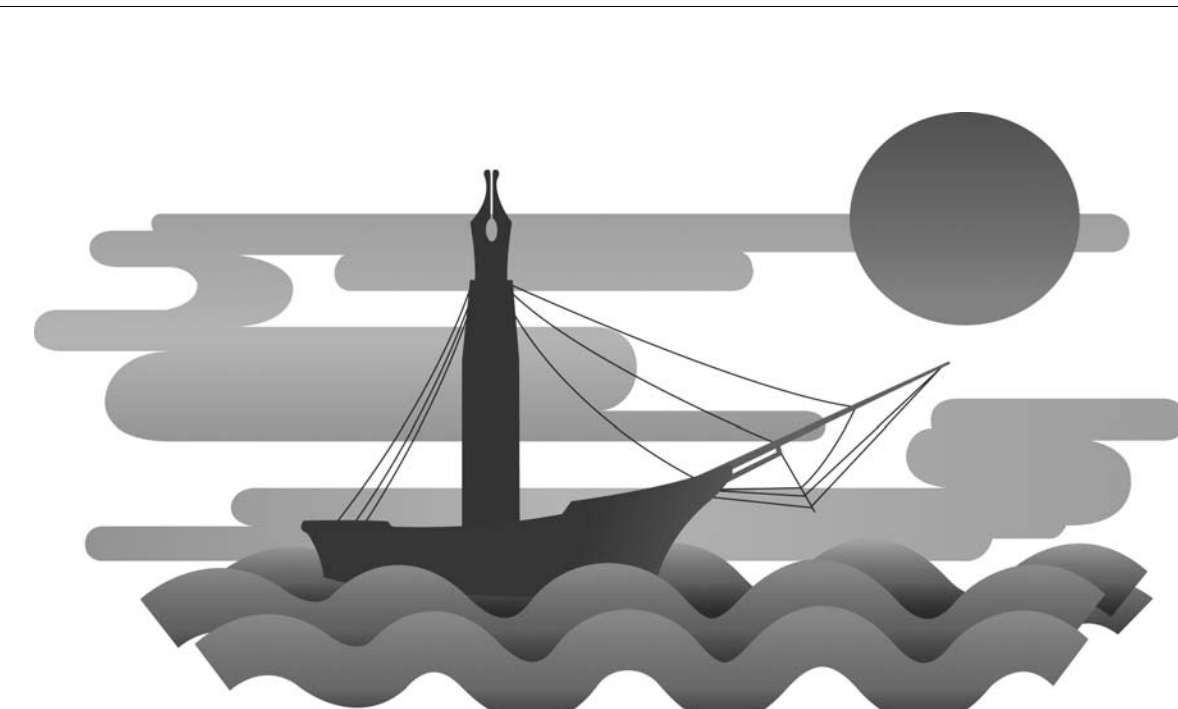
카불의 혼돈은 1975년 '사이공 탈출'과 비슷하다. 탈레반의 재등장은 국제 정세에도 불안 요인이다. 탈레반이 수감된 알카에다 고위 인사 등을 석방하면서 테러 단체들의 세력 확장 우려가 커졌다.

탈레반과 이슬람 운동(ETIM)은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다. 터키 인구의 90% 이상이 역시 수니파 무슬림이다.

탈레반이 범터키주의에 힘을 싣게 된다면 국제 정치 혼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터키 정부는 아프간 난민을 거북한 가운데 탈레반의 재집권을 환영했다.

이슬람 운동(ETIM)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극단주의 세력이다. 아프간은 미래에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탈레반의 귀환으로 아프가니스탄 주변국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한국 역시 이런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